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있다

이운기(상명대 국가안보학과 1학년생)

지난 11월 15일 토요일 오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1,2학년 병영체험 일환으로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두세 번 연기된 탓에 더욱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전보다 유난히 더 넓게 보이는 광장과 겨울바람에 눈에 띄게 힘차게 펄럭이는 16개 유엔군 참전 국기들이 한 눈에 와 닿았다. 윤지원 학과장님께서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우리에게 16개 참전국가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먼 이국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으로 지켜낸 자유 민주주의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

방문 일정 첫 프로그램은 탈북민 이효주 강사님의 강연이었다. 북한에서 음악교사였던 강사님이 어린 두 딸을 데리고 태국을 경유해서 힘들게 탈북에 성공했던 예길 들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북한식 사회주의에만 있는 유일한 ‘수령제’의 문제점과 북한에만 없는 ‘시민단체,’ 북한 주민들은 늘 감사와 통제 하에 놓여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체제 붕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을 들으면서 통일이 멀게만 느껴졌다. 하지만 장마당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우리의 인기 드라마와 BTS와 같은 대중음악 등이 유입되고 대다수 북한 주민들이 남한 사정을 잘 알고 있다는 설명에는 통일에 대한 희망을 다시 가져보았다.

강연이후 개별적으로 전쟁기념관을 자유롭게 관람했다. 6.25전쟁 70주년 특별전 시장에서 38분들의 이야기와 영상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과 영상은 화가 김성환님의 “그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사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였다. “현재 우리 사회와 세계는 평화라는 두 글자의 이불을 덮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 이불을 덮어준 것은 전쟁이라는 어두운 현장에서 자신들을 희생한 참전용사들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해볼 수 있었다.

또 감동적이었던 영상은 영국군 참전용사 고 윌리엄 스피크먼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6.25전쟁 당시 희생정신을 인정받아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을 수여 받았고, 한 인터뷰에서 “자신은 한국에 묻힐 것이라고 밝혔고,” 2015년 4월 훈장을 전쟁기념관에 기증했다. 특히 그의 훈장과 숭고한 희생을 기억해달라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전시장의 38번은 ‘무명용사’의 글귀였다. 전쟁영웅들만 기억하지 말고 이름 없이 죽어간 무명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꼭 기억해야한다고 다짐했다.

찬찬히 둘러보고 전쟁기념관을 나오면서 광장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사이로 우뚝 서있는 6.25전쟁 조형물을 다시 보았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의 ‘위대한 평화’를 만든 순국선열들과 수많은 무명용사들과 유엔군 참전용사들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예를 표했다. 미래 장교임관이라는 꿈을 갖고 국가안보학과에 입학한 후에 처음을 방문한 전쟁기념관은 국가와 사회, 나의 꿈과 삶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뜻깊고 소중한 곳이 되었다.